

옛새만에 49명... 확진자 폭증에 병상·의료인력 부족 현실로

광주시 병상 확보·의료진 지원 요청
전남도 공중보건의 5명 우선 파견
대구시도 "남은 병상 제공하겠다"

광주에서 최근 옛새 동안 4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들로 인해 의료진 부족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인근 전남도도 병상 제공과 의료진 지원을, 대구시가 병상 지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9명이다.

옛새 만에 기존 확진자 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확산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병상 포화상태가 우려된다. 현재 광주지역 병상은 국가 지정 치료병상 17개(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10), 감염 전담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 병상 47개 등 총 64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최근 증가하면서 가용병상이 줄었고, 향후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병상 부족에 대비해 광주·전남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의료진과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에 공중보건의 파견과 병상 제공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광주시에 요청에 따라 우선 공중보건의 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파견근무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악화하고 광주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중보건의 파견 외에 환자 병상도 광주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시의 여유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아 전남도가 확보한 여유 병상을 광주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강진의료원 14개 병상과 순천의료

원 4개 병상 등 20개 병상이 1차로 지원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광주의 경우 전남과 인접 지역이어서 광주 방역을 돕는 것이 우리 지역 방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광주 확진자들과 접촉한 21~23번 환자 이외에는 지역사회 내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으며 해외입국자 확진 사례만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중 14명이 해외 입국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도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자신과 이웃의 보호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남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점검 회의를 갖고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검토, 비접촉식 체온계 확보, 방문판매업소 특별지도, 농축산분야 무자격 외국인 관리, 안심 해수욕장 예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을 겪었던 대구시도 광주에 병상 지원을 제안했다.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병상 나눔'을 해준 광주시에 대한 보답인 셈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는 광주에 병상 지원을 제안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화해 "대구에 200여개 병상이 있으니 광주가 부족하다면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남, 전북 병상을 우선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역 사회 합의를 따라 병상 부족 사태를 겪은 대구의 확진자를 광주로 이송해 '달빛(달구 달빛고을) 동맹' 병상 나눔을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급증해 의사, 간호사, 검체



2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52병동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동이 임시 폐쇄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채취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며 병상 확보와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확진자 60% 이상 60대 넘은 고령층 중증환자 없지만 치명률 높아 우려

일부 기저질환 있어 의료진 촉각

광주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60% 이상이 60대 이상 노령층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중증환자는 없지만, 언제든지 상태가 악화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간 확진 판정을 받은 49명(광주 34명~82번) 중 60대 이상이 31명으로 63%를 차지했다.

해외 입국자 1명(38번)을 제외한 48명이 사찰·교회·방문판매업체(오피스텔)·요양 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된 지역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연령 대별로는 30대 2명, 40대 1명, 50대 15명, 60대 20명, 70대 9, 90대 2명이었다.

현재까지 중증 환자는 없으나 일부 환자의 경

우 당뇨, 심장질환, 혈압, 급성 신우신염, 협심증 등 기저 질환이 있어 의료진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는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 확진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안전함을 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9%다. 50대 이하에서는 1% 미만이지만 60대 2.43%, 70대 9.49%, 80대 이상 24.91%에 이르는 등 고령일수록 위험성이 급증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젊은 환자들이 대부분 경증인데 비해 연세가 많은 환자는 다른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아직 다른 요양 시설이나 병원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확진자 급증에 검사 건수 3~4배 증가

24시간 검사체계...의료진 피로 호소
5개구 보건소도 검사 의뢰 발길 북적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의 업무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검사를 맡고 있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들은 모두 26명이다.

이들은 4개조로 나뉘어 휴일도 잇는 채 상시 비상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 체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5개월 넘게 지속하고 있다. 1조가 하루에 담당하는 검체 수만 50~60개

에 이른다. 검체 수가 초과하면 다른 조까지 투입해야 한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검체 수도 3~4배 증가했다. 1일 하루에만 검체 700여건을 분석했다고 한다. 모든 연구원이 일 시간도 없이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잠시 쪽잠을 잔 뒤 업무에 재투입되고, 잠시 퇴근하고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며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실험실이 음압 상태인 데다가 무거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탓에 육체적 고통도 크다. 검사 과정이 통상 5~6시간 정도 걸리고 유전자 추출, 균질화 작업에서 시약을 섞는 작업 등 대부분 과정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작업이어서 상당한 노동력과 집중력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검사를 의뢰하는 시민의 발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청과 보건소 직원들은 검체 채취와 함께 밀려드는 상담 전화에 응대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방호복까지 입고 외부 선별진료소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체력적 한계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확진자들이 복구에 많이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인력 재배치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체력적 한계를 믿고 정성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로 답답하시죠?

청정 제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 제1일 : 제주 도착 - 숙소
- 제2일 : 호텔조식 후 출발 - 카멜리아힐 - 서커스월드 - 중식 - 서핑체험 - 제주비경 - 호텔
- 제3일 : 기념품전시장 - 승마체험 - 성읍민속마을 - 중식 - 에코랜드 - 해녀촌 - 제주출발

블루나레 (제주↔완도)

제주-육지 최단시간 1시간20분

골드스텔라 (제주↔여수)

초호화 대형여객선

제주여행은 승족레저관광과 함께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